

## 문제 직시가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이야기 방식’에 기초한 보고 형태 -

장 성 숙<sup>†</sup>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적 상담의 한 모형으로 제안된 현실역동 상담접근의 특성 및 다양한 상담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주요 범주를 소개한다. 그리고는 갈등문제를 일으킨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현실역동 상담에서 제 1의 특성으로 삼고 있는 문제의 진상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질적 연구의 한 방안인 “이야기 방식”으로서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야기 방식’은 상담자의 진술적 보고로서 상담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축어록 방식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야기 방식은 해석학적 모델에 근거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의도한 정보 및 의미 전달에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 소개된 사례의 내담자는 가족 간의 불화로 2년 이상 개인상담을 받는 동안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집단상담에 와서 문제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곧 바로 호전을 보인 사람이다.

주요어 : 현실역동 상담, 문제의 진상 파악, 질적 연구, 이야기 방식

---

\* 본 연구는 가톨릭대학교 2008년 교비연구의 지원에 의함

† 교신저자 : 장성숙,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 2동  
Tel : 02-2168-2891, E-mail : changss312@hanmail.net

우리나라 상담분야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적 안녕이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서양에서 발달된 정신분석적 접근, 인간중심적 상담 접근, 인지-행동적 상담접근 등과 같은 상담이론 및 접근들을 실시하는 편이다. 이와 같은 기저에는 그러한 상담이론 및 접근들이 보편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어떤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다(장성숙, 2000).

그러나 이와 같은 주요 상담이론들은 실지로 문화보편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문화특수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화적 차이로 인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령, 서양에서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고 자율적인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자녀를 자기 확대로 여기는 경향으로 인해 가족의 끈끈한 유대 속에 묶어두려 한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편이다(김의철, 박영신, 2007). 그리고 서양사회에서는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주류를 이루지만, 동양사회에서는 서열이 강조되는 위계적 인간관계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 내담자에게 일률적으로 독립성을 강조해 다가는 오히려 더 큰 갈등을 겪게 할 소지가 있다(장성숙, 2007).

적응을 도모하는 상담에서 문화변인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필수사항이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적 상담모형의 일환으로 제안된 현실역동 상담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우리문화에 기초해 형성된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제 1의 특성인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가 상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

하고자 한다. 이것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실역동 상담접근으로 실시한 사례를 ‘이야기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연구자가 상담의 진행과정을 기존의 축어록 형태의 방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을 곁들인 진술로 해석학적 모델에 기초한 질적 연구방법의 일환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현실역동 상담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 다양한 상담이론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정서의 영향이 강조된 나머지 지나치게 공감 위주의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태에 대한 파악이 소홀해진 점을 지적하고, 사례를 통해 상담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 방식’으로 제시한다.

### 현실역동 상담의 특성

한국적 상담모형으로 제안된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파악한다(장성숙, 2000). 특히 집단주의의 우리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사회에서처럼 자기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기보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자아실현(自我實現)과 같은 개인적인 성취보다는 자가실현(自家實現)과 같은 공동체적인 성취를 더 추구하는 편이다(최봉영, 2007). 뿐만 아니라 집단의 가치기준을 자신의 가치기준보다 소중히 하며 인간관계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관계주의의 문화를 발달시켰다(한규석, 2002). 이렇게 ‘우리’라는 것을 근간으로 우리사회는 상황 맥락적 자아를 발달시키며 관계의 최우선성에 역점을 둔다.

상담에서 목표로 하는 적응적인 삶이란 실

제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에서 조화를 의미한다. 현실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매우 복잡적이고도 역동적인 곳이다. 이런 곳에서 각 개인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심리내적 균형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안과 밖의 현실에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비로소 적응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역동 상담이라고 명명된 접근에서는 무엇보다도 당당한 삶의 태도 즉, 더불어 사는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접근에서는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지(知)·정(情)·의(意) 모두를 강조한다.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비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서적인 응어리가 풀려야 하고,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삶은 어느 한 요소에 의해 일방적으로 영향 받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체계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한 현실역동 상담이 지닌 특성은 다음과 같다(장성숙, 2007).

**1.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우리'라는 가족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집단주의에 근거한 체면문화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하지 않더라도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2. 심정을 헤아려주기:** 사람은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어야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하는 편인데, 한국 사람은 정(情)과 한(恨)의 존

재라고 일컬어질 만큼 감정적인 면을 중시한다(최상진, 2000). 따라서 상담자는 무엇보다 내담자의 심정 특히, 원통하고 서러운 감정을 잘 헤아려 주며 이해를 해주어야 내담자와의 탄탄한 관계형성을 이룩하며 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

**3. 외적현실을 중시하기:** 관계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에 대한 갈등이다. 이런 문제에 심리내적(intrapsychic)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내담자의 외적인 현실세계 즉, 대인관계 문제(interpersonal problem)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한 개인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관계에서 적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4. 역할에 대한 강조:**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위치에 따른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장성숙, 2004).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관계 속에서 무엇을 소홀히 했는지 즉,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에서 무엇을 이행하지 못했는지를 일깨워주고,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5. 상담자의 어른 역할:** 우리사회에서는 상담자를 심리적 도움을 주는 전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방향을 모색해주는 어른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으면 상담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담자는 이상적인 어른으로서 내담자를 돕기 위해 자애로운 모습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엄하게 질타하는 엄부자모(嚴父慈母)의 모습도 취할 필요가 있다.

**6. 직면을 활용하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거나 의존적 욕구 때문에 상담의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공감이나 해석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순점을 지적한다든가 질타를 가하

는 적극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사람은 자존심을 갖는 존재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 가장 빨리 변화하므로 상담자는 다양한 직면 기술을 개발할 변화에 대한 동기를 촉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부모-자녀관계 복원:** 한국인에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종교에 버금갈 정도로 비중이 크다(한성열, 2005). 대개의 갈등이 그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와 자녀 간의 화해는 다른 무엇보다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담 후반에 부모의 상을 재 조망하도록 도와주면 상담성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8. 사회성 촉진:** 삶을 영위하는 양대 축이 능력과 관계라면, 우리사회에서는 원만한 관계능력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편이다. 독립적인 개체화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성 즉, 난 놈보다 된 놈을 더 중시하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내담자를 부단히 사람들 속으로 밀어주어 그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도록 해준다.

### 상담접근의 흐름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 양상이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증상을 비롯한 행동이나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접근 즉,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은 오늘날 400여 가지 이상에 다다를 정도다(Corey, 2001). 그러나 이렇게 생성소멸이 거듭되고 있어도 그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성심리(rational psychology)에 기초한 상담 및 치료이론들이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사람의 이성, 자유의지, 책임감을 강조하며 사람을 의식적 존재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성이 균형 잡히지 못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위한 교육이나 직접적인 지침을 강조하는 편이다. 이렇게 이성심리를 주축으로 하는 상담접근은 지시적인 상담이나 생활 가이드선스와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사고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인지치료에서 다시 부활되었으며, 오늘날 확산하고 있는 코칭이나 멘터링도 이것의 한 부류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유기체심리(organic psychology)에 기초한 것으로 생물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들이다. 의사들 사이에서 영역을 넓힌 이쪽 분야는 일찍이 극심한 증상을 다스리고자 전극을 통해 뇌세포를 자극한다든가 전두엽을 절제하는 시술을 해왔다. 인간의 마음을 세포의 기제로 환원해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세포의 기능 즉, 호르몬 분비활동을 억제하거나 활성화시키는 향정신의학품을 통해 증상을 통제하고자 한다. 뇌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로서는 정신병적인 증세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셋째는 역동심리(dynamic psychology) 또는 심층심리(depth psychology)에 기초한 관점으로 현재로서는 상담분야에서 가장 폭넓은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이 입장의 대표 격인 정신분석에서는 역동심리의 발전 및 체계화를 구축했으며, 장애를 비합리적인 정신적 힘(irrational mental forces) 즉, 정서에 의해 야기된다고 보고 그런 정서적 응어리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것을 풀어주는 것에 우선성을 둔다(Kernberg, 1997).

증상에 대해 다양한 접근들을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지난 몇 십년동안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 가장 영향을 떨친 것은 세 번째 범주의 역동심리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정신건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편이다. 이러한 추세는 인본주의 철학을 담은 수많은 상담이론 및 접근에서도 이어졌다. 특히 지시적인 상담에 반기를 들고 출현한 인간중심 상담에서는 공감을 강조하며,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을 상담자가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함께 해주는 것을 최우선시 했다.

정서에 우선성을 두는 것에 대한 반동으로 인지를 강조하는 인지중심의 치료들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지지나 공감 일색의 상담 및 심리치료 계에 상담자의 능동성을 되살렸으며, 이성의 기능을 강조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가 응어리진 감정을 녹여주는 것 이상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Friedberg, & McClue, 2002). 그러나 인지치료에서 주장하는 비합리적 사고나 자동적 사고와 같은 협소한 의미의 병리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인지의 역할 및 기능을 조망할 것이 요청된다.

인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일찍이 Alexander에 의해서도 언급되었다. 그는 치료의 기제를 기술하면서 '교정적 정서체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치료의 기본원칙은 내담자를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좀 더 우호적인 정서적 상황에 노출시켜 그가 지적인 통찰을 이룩하고, 나아가 체계적인 현실검증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Yalom, 2005). 다시 말하면, 변화는 내담

자가 자기를 충분히 들어내도록 촉진하는 지지적인 분위기와 아울러 현실검증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지적 이해가 뒷받침될 때 이룩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변화 기제인 교정적 정서체험에서 이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에 대한 공감이 강조된 나머지 상대적으로 이성의 중요성이 묻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나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지와 정서 중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 인지가 결여된 정서는 허황하게 마련이고, 정서가 결여된 인지는 메마르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의 성패가 문제의 진상에 대한 파악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그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한 방안으로 '이야기 방식'을 채택한다.

### ‘이야기 방식’

연구대상에 의해 과학과 비과학이 구분되던 것이 르네상스를 전후로 방법론에 의해 구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서 과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했던 심리학에서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강조하게 되었다. 심리학에서 연구방법이 분류 중심 접근에서 현상 내의 인과적 관계 중심으로, 개별사례 중심에서 일반화 중심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개별사례 중심의 추론에서 예외가 없는 법칙 중심의 접근으로, 직관적 질적 분류 및 기술에서 객관적 범주화 및 수리적 지표 중심의 양화(量化)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자연현상을 다루기보다 인간의 심리현상을 다루는 심리학에서 방법론적 틀을 너무 협소하게 설정하는 바람에 심리학이 지녀야 할 본래의 가치가 축소시키고 말았다. 다시 말해, 심리학이 엄격한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과학적 발전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타당화 중심 연구가 어려운 대상은 연구에서 도외시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그동안 우리가 고수하고자 했던 경험적 타당화 연구가 지니는 효용성에 대해 돌아켜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이정모, 2009).

현대 심리학에서는 객관성을 띠고, 연역법칙적 설명이 가능하고, 결정론적 인과론을 밝힐 수 있는 물리학적 방법론을 과학적 연구방법의 전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연구방법은 오늘날 실용적 설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Salmon, 1989). 사정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의 이론적 가설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영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 확률에 의해 검증하는 연구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Schmidt, 1996). 인간 행위에 대한 설명에는 결정론적인 원리보다 목적론적 원리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실, 실증주의적 자연과학에 기초한 연구방법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상담심리학에서 적지 않은 한계를 나타낸다. 상담심리학은 이론분야가 아닌 응용분야로서 실용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중시하며 총체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심리적 그리고 행동적 의미는 사회 공동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어지며, 감각적 경험 자료보다는 언어적 의미 자료가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포함하는 이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식의 과학에 대해 경직된 신화적 생각을 이겨내 버려야 한다(Bickhard, 1992).

자연과학적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해석학적 모델인데, 여기서는 규범 법칙적이 아니라 개체 특성적이고, 양적 방법보다 질적 방법이 주 방법이고, 숫자로 환원하는 통계적 해석보다는 언어로 하는 해석이 강조되고,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우선시 된다. 이러한 해석학적 모델에 기초한 새로운 질적 방법으로는 비구조화인터뷰법, 담화분석법, 대화분석법, 직접관찰법, 일기/생애분석법, 민생법, 역할기법, 공조탐구법, Q방법 등이 있다. 근간에는 이런 연구방법들에 의해 그동안 양화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인문사회과학적인 많은 심리현상들이 연구주제로 소생되고 있다(Lieblich, McAdams, & Josselson, 2004).

대안적 방법으로서의 질적 연구방법은 인문학에 가까운 것으로서 세련화, 체계화, 확장의 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과학으로서 심리학이 확립하고 있는 지위를 훼손하리라는 생각은 인식론적으로나 과학철학적으로도 합당하지 않다(이정모, 1995a, O'hear, 1989). 인간행위로서의 심리현상은 목적론적인 이야기 형태의 설명이 더 타당하며, 질적 연구자의 관심은 상황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로서 필요로 하는 것은 서술적 지식(what), 절차적 지식(how), 조건적 절차적 지시(when), 자동화(mastery)이다. 다시 말해 실용적 지식, 실제의 지식, 상황적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질적 방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문제의 진상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고, 또 그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해 채택한 '이야기 방식'은 본 연구자가 제안하는 서술방식으로서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관찰한 내용을 상담자의 관점에서 상담내용 및 과정을 정리해 서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사례 연구에서 상담자와 내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제시하는 축어록 방법(protocol methods)과는 달리 보고자(상담자)의 해석적 서술이다. 축어록 방식은 실제 주고받은 대화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현화 된 것만을 드러낼 뿐이지 내재된 의미나 함축적인 단서는 표현시켜 내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축어록을 읽는 독자는 자기 수준에 따라 상담의 과정이나 상담의 성과를 각기 다르게 이해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야기 방식'에서는 보고자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례내용을 구성하고,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런 점에서 '이야기 방식'은 축어록에 비해 훨씬 적극적인 의미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야기 방식'에 취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성이나 해설에 있어서 보고자의 주관성이 개재되므로 허구성이나 끼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이야기 방식'에서 배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갖는 장점은 상담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방대한 량의 대화를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 즉, 상담학도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복잡한 도식이나 숫자로 환원하지 않고 언어로 하는 '이야기 방식'이 지닌 강점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현상에 대해 관찰

을 토대로 한 해설적 진술로 다른 무엇보다 접근성이 높다는 것이다. 언어라는 매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다른 어느 것보다 보편성을 띠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매우 풍요롭기 때문이다 (이원표, 2001).

'이야기 방식'이 가져야 할 기본원칙은 목적인 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현상을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직결되어있다. 외현화 된 것에 대한 보고를 기계적으로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축어록 중심의 기존 상담사례 발표와 다름이 없다. 축어록 식의 발표는 상담자가 목적하는 바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빠트릴 경우에는 보고자의 주관적인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고자는 독자와의 공명 즉, 납득의 정도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이야기 방식'이 얼마나 합당한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가를 가늠하는 기준은 보고자가 목표로 하는 의미를 독자에게 얼마나 전달하느냐 하는 설득력의 정도라는 것이다. 설득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보고자는 학문의 목적인 지식의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진술과 함께 현상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을 펼친다. 특히 상담학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상담의 과정 및 상담성파를 진술하는 '이야기 방식'은 전개방식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 여기에서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자의 방식이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일수록 독자가 느끼게 되는 감흥의 정도나 납득의 정도가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야기 방식'에 있어서 지나치게 세부

적인 규정이나 엄격한 지침은 자칫 해가 될 수 있다. ‘이야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교감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서술(description)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상황을 기술하는 강약조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교감은 기계적인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 다분히 예술적인 요소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 상담의 실제

다음은 집단상담에 참석한 사람의 호소내용을 집단상담자가 어떻게 다루었으며 또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 방식’으로 기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초점화 한 것은 ‘문제의 진상에 대한 파악’이 상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그것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상담의 실제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연수원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5박6일 동안 진행되는 집단상담에 23명이 참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40대 남자가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참석했다며 첫날 서둘러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았다. 직장 상담실에서 2년 이상 상담을 받았는데 진전이 없자, 그곳의 상담자가 이곳을 적극 추천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장남인 그는 병든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던 3년 전부터 가족 간에 생긴 불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도대체 이해할 수도 소화할 수도 없는 사태 앞에서 제대로 음식을 먹기도 어려웠고 잠을 이루기도

힘들었다는 것이다.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그는 이제 단 하루도 한 움큼씩의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니 5박 6일의 집단상담이 끝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약물 때문인지 그의 왜소한 체구는 강말라 있었다. 누가 봐도 지친 모습이였다.

첫날에는 상세하게 파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 동기를 들어가며 호흡을 늦추다 다음날 그에게 해결하고 싶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다며 하나는 IMF 때 사촌형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손해 본 1억5천 9백만을 받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버지를 부양하는 문제로 불거진 형제간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지 않아도 없는 살림에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그는 화를 삭이지 못해 이 판사판의 극한 심정으로 사촌형을 찾아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막상 당사자를 보면 딱한 마음이 들어 어쨌든 먹어야 산다며 도리어 주머니를 털어 밥을 사주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심성이 모질지도 독하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고향에서 부유하게 사는 사촌형의 부모로부터 약간의 돈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런데 근래에 집을 넓혀가느라 은행 빚을 많이 졌고, 또 두 아이의 학원비를 대는 등 쪼들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머지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했다. 남의 돈을 때



어 먹은 그들은 부유하게 잘 사는데 왜 자기는 헉헉거리고 살아야 하느냐며 분통 터지는 마음을 내비쳤다.

이런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집단상담의 공동작업자인 철쭉님(별칭)은 그 돈을 받으려다가는 도리어 망가져 죽고 말겠으며, 현 시점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병신 되는 길을 가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불행이라고. 중국적으로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덩달아 허물어지지 않겠느냐고. 본인이 살았던 것처럼 처절하게 살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키우려던 어린 자식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냐고. 이런 말로써 그에게 가족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가며 사랑하는 처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보면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다음날 그는 말하기를, 밤새 생각해보았는데 그 돈이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그냥 사랑하는 가족과 열심히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주지 않으려는 돈을 억지로 받으려다가는 건강을 잃은 자기가 정말 죽고 말겠다는 인식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철쭉은 10여년을 독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 어찌하여 하룻밤 사이에 그 무거운 한(恨)의 끈을 놓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상기된 얼굴로 아득한 옛날을 더듬듯 허공을 응시하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럽고도 힘겹게 살아나온 것에 비하면 돈은 별 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에게 철쭉님은 그

래야 산다며 꼭 받아야 할 돈이라면 남아 아닌 친인척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지 않겠느냐고 시기에 대해 여유롭게 생각하라는 말을 건네주었다.

다음의 사안으로 형제간의 불화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 우리는 물었다. 그러자 그는 시골에서 홀로 살던 아버지가 말기 암 환자로서 3개월 정도 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명이 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음 아닌 제수씨가 뜬금없이 만이인 자기에게 와서 얼마 되지 않는 문전옥답이지만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니 모두 팔아서 본인이 갖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하더라는 것이다. 그는 삼 남매 중 장남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었고, 여동생 또한 서로 논의 할 때와는 달리 뒤돌아서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이의를 달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땅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둔 상태란다.

어쨌든 그는 장남으로서 으레 아버지를 모시며 병간호를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여간 까탈을 부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3개월 밖에 못산다고 하던 아버지가 지금까지 3년 이상을 버티셨는데, 모시는 동안 왜 좀 더 자기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등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특히 며느리에게 왜 남편 상에 올려놓는 반찬과 당신 상에 올려놓는 반찬이 다르냐며 호통을 치곤하니, 기가 막힌다는 것이다.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중 마침 이사를 하게 되어 짐 정리를 하는

동안 동생에게 한 열흘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하였단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동생이 아버지가 형네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볼 생각을 하지 말라며 강경하게 나오더라는 것이다. 아버지를 안 모시겠다고 아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짐 정리를 할 동안만 모셔달라는 부탁에 동생이 그렇게 거칠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아무튼 동생이 그렇게 거부의 몸짓을 보이자 자기도 오기가 생겨 고집을 부리며 그럼 2~3일이라도 아버지를 모셔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동생네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부터 동생이 형제간의 혈연도 끊고 아버지를 뵈러 형이 자기네 집에 오는 것조차 막무가내로 차단할 하더라. 자기가 아버지를 내쫓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잠시 며칠만 모셔달라고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마저 사고를 당해 한쪽 손을 못 쓰는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중학생이던 자기가 밥을 해먹이며 동생들을 학교에 보냈단다. 본인은 공고를 나와 수도권에서 직장을 잡은 다음, 동생을 끌어올려 동생이 결혼을 해살림을 날 때까지 데리고 있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랬는데 아버지 부양문제로 동생이 그렇게 나오니,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 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그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울화병을 앓고 있었다. 아버지가 동생네 집으로 간 다음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동생이 너무나 눈을 부라려 그 후부터는 왕래를 끊고 있단다.

이런 집안내의 분쟁을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다. 현재 암이 전신에 퍼질 대로 퍼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 때 며칠 얼굴을 내밀면 그뿐이라고 말하는 그는 약이 잔뜩 올라 혈육의 정에 대한 아픈 상체기를 역역이 드러냈다.

상담자인 나는 그가 말이로서 할 만큼 했고 또 기껏 아버지를 모시다 뒤 늦게 무슨 이런 봉변을 당하는가 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도대체 동생이 형 내외에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싶어 아직 말하지 않은 어떤 내막이 있으리라 여겼다. 그리하여 동생에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무슨 실책을 이쪽에서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고 집단상담자로서 나는 이러 저리 짚어 보았다.

그러나 딱히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해 고심을 하고 있을 때였다. 맞은편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철쭉님은 그에게 시골에 있는 재산이 시가로 얼마나 되냐고 물었다. 1억 원 남짓 된다는 대답이 나오자, 철쭉님은 다시 그에게 동생네의 사는 형편이 어떠하냐고 질문했다. 동생이 현재 전셋집에서 산다고 답하자, 철쭉님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었다.

이윽고 철쭉님이 입을 열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골에 있는 전 재산을 물려받고자 동생부부가 욕심을 내 벌어진 것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즉 동생은 재산에 욕심이 생기자 짐짓 버티면서 아버지가 형네 집을 나오면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두 번 다시 보지 말라고

업포를 놓았다는 것이다. 그래도 형이 아무 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당분간 맡아달라고 부득불 우기자 동생은 옹기니 하며 얼른 아버지를 모셔가면서 형과의 단절을 시도한 것이란다.

이런 철쭉님의 설명에 그는 벼락을 맞기라도 한 듯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꿈에라도 동생이 그러리라고 생각해보지 못한 내용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나 또한 '아하, 저것이었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발을 굴렀고, 집단원들 역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렸다.

그래도 믿기지 않았는지 그가 무겁게 침묵을 지키자, 철쭉님은 그에게 지난 번 명절에 찾아가 아버지를 만날 때 동생이 어떤 태도를 보이더냐고 다시 물었다.

“동생이 내가 온 것을 극도로 싫어하며 팡팡대기에 얼른 나와 버렸지요 아, 내가 뭐 집이 없나...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 짧은 순간에도 아버지는 내게 그쪽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더라고요.”라고 그가 대꾸했다.

이 말에 철쭉님은 바로 그것이 증거라고 했다. 형을 그렇게 푸대접 한 것은 아버지가 동생 내외에 대한 흥을 볼까봐 경계를 한 것이라기보다 중심도 없는 아버지가 혹시 형네 집으로 되돌아갈까봐 만남 그 자체를 차단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욕심에 벌어진 것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켜어지자, 나는 무엇보다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통에 대해 걱정이 되었다. 아무리 돈에 갈급할지라도 다름 아닌 동생이 형을 그렇게 몹쓸 사람으로 몰아세워 근 2~3년을 환자로 만들어버

리다니, 그 배신감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싶어 가슴이 쓰렸다. 믿었던 자에게 당하는 배신감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혹시 그의 아내가 시아버지를 홀대하지는 않았나하여 여러모로 짚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내가 아버지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굳이 아내를 욕 먹이기 싫어서인지 아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동생에 대한 배신감을 희석시키려는 의도에서 피가 안 섞인 사람이 들어오면 가족 간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마련이라고 슬쩍슬쩍 말을 넣었다. 즉 그런 형제간의 불화 역시 이쪽에서 틈을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다음날 그는 집단상담에 행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기의 동생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제 동생은 그렇게 간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 동생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며 또박또박 이어가는 그의 말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 앞에서 그는 안간힘을 쓰며 비장하게 버티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를 우리 모두는 묵묵히 바라보았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라도 항변하지 않으면 못 견디겠는 절규로 보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속에서 그는 독백을 이어가다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만에 하나 동생이 그런 식으로 등 뒤에서 자기를 도끼로 내려치고자 한다면 기꺼

이 맞겠습니까.”라는 말을 하고는 마침내 그는 어깨를 들먹이며 울었다.

그 납득할 수 없던 사태가 다름 아닌 유산을 가로채기 위한 계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망연자실하던 형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고 버티다 무너지는 모습, 만약 도끼로 자기를 내려치려 한다면 기꺼이 맞겠노라고 체념하며 울부짖는 형의 망연자실한 모습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 형언하기 어려운 깊은 비애감에 휩싸였다.

한참을 지나 울컥하는 감정이 잦아지자, 그는 오래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자기는 그래도 중학생 때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라도 있단다. 그러나 동생은 막내로서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할 것이란단다. 동생은 그렇게 자란 불쌍한 자라며 그는 자기보다 어머니의 손길을 덜 받고 자란 동생에 대해 연민을 표현했다. 그래서 자기는 동생이 어떠한 짓을 해도 받아들여주겠다고. 그 돈 없어도 자기는 살 수가 있다고 했다. 그동안 자기는 한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놓은 적이 없었고, 장가를 간 지금 아내가 옆에 누워있어도 잠이 들 때는 늘 어머니를 떠올리곤 하였단다. 그러나 지금은 어머니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도록 했는지 어머니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즉 어머니가 좀 더 살다 가셨더라면 형제간에 이런 재산을 둘러싼 불화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니냐며 눈물을 흘렸다.

그도 한 인간이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는 어머니 탓으로라도 돌려야 그나마 숨을 쉬겠는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었다.

공고를 나와 객지로 떠돌면서 사는 게 힘들어 20대 초반에는 자살시도까지 했던 그 사람. 그러나 강한 생명력으로 대기업에 입사해 20여명이나 되는 입사동기들은 다 떠나갔어도 유일하게 버티며 살아남은 그였다. 그러한 그는 그래도 만이로서 구실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애를 쓰며 살았는데, 동생에 의해 이 지경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몰렸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처방의 약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환자가 되어버렸으니 그 참담함이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참담함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수습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분노에 길길이 뛰지를 앓았고 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을 부라리지도 않았다. 자기 동생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지만, 설사 철쭉님의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러한 동생을 그냥 받아들여주겠다고 다짐하는 마음 특히, 어머니의 손길을 덜 받고 자란 동생에 대한 연민을 앞세워 모든 것을 수용하고자 했다. 다만 사람으로서 가늠할 길 없는 좌절감을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에게로 돌려 내비칠 뿐이었다. 그래서 집단원들은 몽클한 심정으로 그를 지켜봤다.

그런데 철쭉님은 또다시 그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은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마음의 자유를 찾은 것이라고 했다. 즉 그동안 어머니를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연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제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

은 자기연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며 다행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알려주기를, 마음의 전쟁은 이제부터이니 부디 험다운 자세로 지금과 같은 초심의 마음을 잘 유지하라고 했다. 참으로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격려의 말이었다.

철쭉님의 말속에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었다. 그가 자신에 대한 연민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 의지해 버텨왔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동생이 자기를 도끼로 내려치겠다고 기꺼이 맞겠다고 한 것은 관용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깝다는 것을 간파한 것이다. 즉 그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은 사실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겠다는 막막함 앞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을 철쭉님은 알았고, 그래서 간곡하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던 것이다. 사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큰마음으로 체념을 하고 난 이후 어느 정도 여유를 찾으면서부터 변민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집단상담이 끝나는 날 아침 모임에서 그는 해맑은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약 없이는 하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지난밤에는 모처럼만에 잠을 푹 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 집단상담에 안 왔더라면 어찌할 뻔했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소개해준 상담선생님(개인상담자)께 정말 감사한 마음이지요. 두 분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집단원 모두가 둘러앉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그는 그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며 진심어린 감사를 표했다. 도무지 영문

도 모른 채 동생이 형인 자기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리다가 철쭉님에 의해 그 내막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너무나도 당황하며 기겁을 했지만, 그래서 다음날 비통한 심정으로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도 해보았지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자 돌아가신 어머니를 원망도 해보았지만, 결국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모든 것이 돈에 대한 동생의 욕심에서 벌어진 사태로 꿰어지자 오히려 그는 의문점이 풀리는 시원함을 맛보았고 그래서 일단 후련해 했다. 그래서 해맑은 표정일 수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잠시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그러다가 그는 덧붙이기를, 그런데 이렇게 단박에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살았는지 생각할수록 기가 차단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시간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착잡하고도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어투에는 이 집단상담에 가도록 소개해준 전 상담자에 대해 고마움과 동시에 왜 진작 그렇게 도와주지 못했는가에 대한 원망이 묘하게 뒤섞여있었다.

처음에 보였던 그의 초췌한 모습이 숨가쁘도록 빠르게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를 비롯한 집단원 모두는 실상에 대한 직시가 가져다주는 위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는 엄청나게 고통을 겪으며 2년 이상 개인상담을 받았다. 그동안 슬하게 많은 지지와 공감을 받았지만 고통을 면할 수 없었던 그가 문제의 진상에 대한 파악을 이룩하자

그는 적어도 뭐가 뭔지 몰라 분통터져하는 고통을 내려놓게 되었다.

집단상담을 마친 다음 한달 후에 그에게 전화를 해보았다. 안부를 물으니 잘 지낸 다며 감사의 말을 다시 했다. 목소리는 한결 가볍게 들렸다. 그래서 그에게 문제의 진상을 알게 된 것은 해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실체에 한 발자국 접근했다는 의미라고 말하며, 집단상담에서 말했던 초심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와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디 그 힘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것이다. 그러한 말에 그는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지 다소 어색스럽게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하긴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해서는 엉겁결에 용감무쌍한 결단을 내리긴 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섭섭하거나 꽤 씁쓸한 생각이 새록새록 드는 법이다. 그러니 그도 동생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도 일단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향은 잡은 셈이니 5박 6일의 집단상담 성과는 그 정도만으로도 족했다고 본다.】

### 현실역동 상담의 제 1의 특성에 입각한 사례분석

우리사회는 혈연을 근간으로 하여 집단주의에서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계주의 문화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라는 상호의존관계에서 자신의 입장만이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집단에 누를 끼치지 않고자 체면에 민감해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

식적으로든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편이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상담자는 전체적 맥락을 고려해 내담자의 말 속에 무엇이 생략되고 또 무엇이 각색되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문제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 기초해 발달된 현실역동 상담에서는 문제의 진상에 대한 파악을 강조하는 것을 제 1의 특성을 삼는다. 상담의 성과를 좌우하는 기본 요건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것이다. 이것이 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상담 작업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의 실체 즉, 사태에 대한 직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밝히고자 ‘이야기 방식’의 형태로 집단상담의 사례를 제시했다.

내담자는 본 연구자가 개최하는 집단상담에 오기 전에 2년 동안 개인상담을 받은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는 전 상담자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포함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전 상담자에게 매우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무지 호전을 보이지 않자 전 상담자는 내담자를 집단상담에 가보도록 주선했다.

당시 돈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 있는 내담자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객지로 나와 고생을 많이 했으며 사촌형으로 인해 손해를 보기도 한 사람이다. 그는 이사를 한지 얼마 안 되어 쪼들리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돈을 아쉬워했고, 아버지 부양문제로 동생에게 사람 이하의 취급을 당하자 분을 삭이지 못해 울화병을 앓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상담을 받는 동안 병행해 2년이나 정신과 처방의 약을 먹었지만 호전을 보지 못했다. 집단상담에 의뢰되어 왔을 당시 그는 약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

오랫동안 상담을 받았지만 성과가 나지 않았던 이유는 문제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집단상담에서 공동작업자인 상담자는 그의 문제가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획적으로 벌린 술수였다는 사실을 간파하고는 그것을 내담자에게 알려주었다.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그의 첫 반응은 망연자실함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매우 흥미로운 심리변화의 과정을 극명하게 내보였다. 동생이 그럴 리가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하면 기꺼이 죽겠다고 체념하고, 그리고는 갈등의 뿌리는 어머니에게 있다며 그리워하던 어머니에게 화살을 돌리다, 결국에는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동생의 술수였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덜 받은 불쌍한 동생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하겠노라고 다짐했다.

문제의 진상은 때때로 잔인하다. 그러나 실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게끔 한다. 본 사례에서 상담자가 갈등의 한복판에는 재산에 대한 동생부부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을 해주자, 내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긴 하였지만 비로소 오랫동안의 교착상태를 벗어나 정리를 향한 진일보 할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 문제의 정곡을 찢어주자 망연자실하면서도 그는 곧 바로 불면증이라는 증상에서 벗어났고, 어머니의 사랑을 덜 받고 자란 불쌍한 동생이라며 분노의 대상이었던 동생을 옹호하기도 했다. 설사 그것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에서의 발현되는 체념에 의한 호전이라 할지라도 문제해결에 대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문제의 실체를 모를 때는 어디서부터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막연하다. 이런 상태에서 심정에 대한 공감은 진정제와 다름없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상담성파라는 것은 감정에 대한 해소와 아울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병행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는 심정을 헤아리는 공감 못지않게 문제의 실체에 대한 파악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상담에서 문제에 대한 직시가 상담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예시하기 위해 해석학적 모델에 기초한 질적 연구의 한 방안으로 '이야기 방식'을 제안해 시도했다. 인간행위로서의 심리현상은 결정론적 원리보다 목적론적인 이야기 형태의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상담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런 방식이 유용하다고 본다. 특히 인간을 총체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 상담에서 중요한 개념들인 관계체험, 정화, 공감, 통찰 등은 매우 복잡하고도 미묘하다. 이러한 것들은 계량화하거나 법칙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에는 그 본질이 퇴색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상담은 대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주고받은 대화의 양은 방대하기 마련이다. 이 모든 원자료를 연구에서 제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상담사례 연구에서는 연구자(발표자)가 나름대로 중요한 내용만을 선별해 제시하거나 일부 주고받은 실제 대화내용을 축어록 형태로 제시한다. 그러나 기존의 이런 축어록 자료에서는 해설이 주어지지 않고 표현된 대화내용만 제시되기 때문에 축어록을 읽는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중

요한 점을 파악해 자기 수준대로 이해를 달리 한다. 심지어는 발표자(상담자) 자신도 자기가 상담자로서 내담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고 어떤 성과를 어떻게 내었는지에 대한 파악을 못한 채 실제 주고받은 내용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는 전문지식의 습득이나 공유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야기 방식’을 제안한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 맛깔스럽게 설명하고 강조함으로써 지식에 대한 전달을 용이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야기 방식’이 목적인 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틀을 갖추어야 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논의 할 부분이 많다. 독자가 얼마나 납득하느냐 하는 정도로서 그 타당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함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세세한 규칙을 적용하다가는 보고자의 진술능력이 창의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제한될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 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납득을 이루는 구성요인을 찾아보는 정도 내에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의철, 박영신 (2007).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II): 한국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대한 심리적 토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63-109.
- 이원표 (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사례. 한국문화사.
- 이정모 (1995a). 과학적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 기본 가정의 분석. 한국심리학회 1995년도 심리학 동계연구세미나 초록, 197-249.
- 이정모 (2009). 인지과학: 학문 간 융합의 원리와 응용.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장성숙 (2000). 현실역동상담: 한국인의 특성에 적합한 상담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17-32.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 상담자의 초점: ‘개인중심’ 또는 ‘역할중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3), 15-27.
- 장성숙 (2007). 가족주의와 현실역동상담의 일체적 관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23-537.
- 장성숙 (2007). 상담사례 과정에 반영된 현실역동상담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49-365.
- 최봉영 (2007). 한국사회의 가족문화. 제 8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가족주의와 상담의 관계, 7-22.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한규석 (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개정판). 서울: 학지사.
- 한성열 (2005). 한국인의 문화 특수성: 가족관계로 본 한국 문화의 특성. 한국 문화의 특성과 상담.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제 5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21-30.
- Bickhard, M. H. (1992). Myths of science: Misconceptions of science in contemporary psychology. *Theory & Psychology* 2, 3, 321-337.
- Corey, G. (200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6th Ed.). Thomson. 조현춘, 조현재(역).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시그마프레스.
- Friedberg, R. D., & McClue, J. M. (2002). *Clinical*



- practice of cognitive therapy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New York: Guilford Press.
- Kenberg, O. F. (1997).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contemporary psychoanalytic technique and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In J. K. Zeig(Ed.), *The Evolution of Psychotherapy: The third conference*, 3-22. New York: Brunner/Mazel.
- Lieblich, A., McAdams, D. P., & Josselson, R. (Eds.) (2004). *Healing plots: The narrative basis of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O'hear, A. (1989).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ce. Oxford Univer. Press. 신중섭(역). 현대의 과학철학 입문. 서광사.
- Salmon, W. C. (1989).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P. Kitcher & W. C.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3-219)
- Schmidt, F. J. (1996).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ing and cumulative knowledge in psychology: Implications for training of researchers. *Psychological Methods*, 1, 2. 115-129.
- Yalom, I. D.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United States: Basic Books. 최해림, 장성숙(역). 집단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하나의학사.

논문투고일 : 2009. 08. 04

1 차심사일 : 2009. 09. 07

게재확정일 : 2009. 10. 23

## **The Effect of Facing What Is True in Counseling - Reporting Style Based on Narrative Methods -**

**Sung-sook Cha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Korean clients show a tendency to hide the real causes of problem. Therefore the 'grasping the real cause of a problem' is regarded as the first characteristic in Reality Dynamic Counseling. Many counselors stress over how express empathy with a client rather than understanding a problem. However the attitude change wouldn't be attained without grasping the real cause of a problem. The researcher tries to demonstrate how this characteristic is at play in counseling process. The researcher illustrates this process by 'narrative method' as on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client who had received counseling for stress disorder and insomnia took a turn for the better as soon as getting at the truth of his problem.

*Key words : Reality Dynamic Counseling, grasping the real cause, qualitative research, narrative method*